

[로스쿨 합격기]

로스쿨을 향한 첫발 내딛기

김 예 슬

- 창원 명곡고 졸업
- 아주대학교 법대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



I. 시작하며

부푼 마음을 가득 안고 맞이했던 첫 학기를 시작으로, 저는 벌써 세 번째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방학하자마자 이 곳 저 곳으로 실습을 나가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면서 입시준비를 하던 때를 떠올려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입시준비를 하던 해를 떠올려보니, 혼자 잠을 설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법대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입시준비를 하던 당시 주변에 로스쿨 입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졸업을 비교적 빨리했던 터라, 동기들 중에는 아직 다녀야 하는 학기가 남아있어서 당장 입시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없었고, 선배들도 고시 준비 등으로 졸업이 늦어져서 입시를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입시에 도전을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로스쿨 입시준비를 하면서 혼자 고민했던 부분과, 합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경험이 로스쿨 입시 앞에서 혼자 막막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어떤 시험에서든 그러하듯이, 합격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통해 원하시는 학교에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II. LEET준비과정

1. 언어이해

본격적인 LEET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LEET기출 문제를 다운받아 출력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실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추리논증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수능 언어영역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 조금 친숙했던 언어이해영역에서마저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점을 해보고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하니 무엇보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할 때에는 다른 매체라도 찾아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영상 강의를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느 강사의 어느 강좌가 괜찮을지 찾아보기 위하여 로스쿨 입시 준비 카페를 여러 군데 가입하였습니다. 수강후기들을 조금 읽어보았는데, 좋은 글도 있고 나쁜 글도 있었습니다. 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도 종종 있다고 하니 인터넷 글들은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참고로 하고, 강의 결정은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샘플강의를 들어보고 하였습니다.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개설된 강의를 많아서 고민되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싶어서 기본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공부방법에 대해 고민하거나 책을 고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강의를 선택하면, 공부방법은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교재나 참고자료도 그 강의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편했습니다. 강사마다 강의스타일과 문제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

렇기 때문에 강의 수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의를 하나 정하면 그대로 믿고 열심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한꺼번에 이 강사 저 강사 강의를 듣거나하여 결국엔 한 강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예습과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고, 강의 들을 때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체크해주시는 팁 같은 것들을 다시 훑어보는 방식으로 했고, 예습은 딱히 예습이라고 하기 보다는 문제를 미리 풀어놓지 않으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풀어놓는 정도로 했습니다.

언어이해영역과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간 공부한다고 갑자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거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수가 빨리 오르지 않더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추리논증

추리논증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언어이해영역의 경우와 같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았습니다. 아예 손도 못 대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리논증영역은 더더욱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 것 또한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언어이해영역과 같은 경우는 강사에 따라 수험자의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추리논증에서는 당시 독보적이라고 할 만한 강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교재도 그 분이 강의하시는 것에 맞추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추리논증영역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일단 기본 개념이나 논리식 같은 것을 설명한 후,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어이해영역보다 추리논증영역에 더욱 취약했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 전에 꼭 예습을 했습니다. 기본 개념 설명부분은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했고, 문제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제 방식대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에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교재에 있던 문제들은 모두 기출문제였고, 선생님께서 기출문제는 더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해야한다고 하셔서, 틀린 문제를 위주로 하였지만 맞힌 문제도 어떻게 맞게 되었는지, 선생님의 풀이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른지 여러 번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논증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 때 '논리적 사고'라는 교양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에 염두에 두고 들은 강의는 아니었고, 친구가

추천해서 들었는데, 그 때 교수님께서 교수님 저서 책으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 책은 강좌명과 같이 '논리적 사고'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서점에 가보니 일반 교양서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가지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쉽게 되어있는데, 추리논증영역에서 논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읽었던 그 책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도해보지 못한 방법이긴 하지만, 스터디그룹을 짜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이해영역에서와 달리 추리논증영역에서는 사람들과 문제풀이 방식을 교류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공을 달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을 잘 짜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면 더 빨리 실력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3. 논술

저는 논술 실력은 단기간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쑥쑥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고, 따로 시간을 내서 논술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터라, 논술영역은 유형만 파악하고 가자는 생각으로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별로 입학 전형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논술점수를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도 있으니 지원하고 싶은 학교 입학 전형을 잘 분석하여 그에 맞는 비율로 공부 계획을 세울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지원했던 학교는 실질적인 논술 반영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학교들이었습니다.

LEET시험을 보기 한 달 전 쯤, 서점에 가서 검색대에서 'LEET 논술'이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권 안 되는 책이 검색되었는데, 그 중 거의 기출 정도만 수록된 가장 얇은 책을 구매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모범답안이 있는 책을 구매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답안이 없고, 문제와 문제에 대한 설명만 수록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하면, 자신이 나중에 직접 글을 써 봤을 때 맞는 방향으로 쓴 것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주로 주말에 쉬어가는 느낌으로 시간을 정해서 논술 문제를 풀고 글을 직접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쓰지 않았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같은 글을 보고도 사람마다 하는 생각이 다르고, 특히 논술이라는 영역에서는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답안이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저의 목표는 논술영역에서 특별하게 글을 잘 써서 좋

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도만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모범답안과 비슷한 방향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Ⅲ. 공인영어시험 준비과정

저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 중에 토익을 선택했습니다. 2년 전 좋은 점수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험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LEET공부를 하느라 토익 공부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조바심이 났고, 5월쯤부터는 시간을 좀 투자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로 교재를 구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책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LC부분은 예전에 풀었던 문제집을 가지고 반복하여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년 전 토익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나 고득점자의 말에 따르면, LC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푸는 것보다 듣던 것을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방법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말이 들릴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듣고, 맞은 문제도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RC부분은 계속 푸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part5,6 부분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부했습니다. 해커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출예상 문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지에 대한 무료 해설 강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집에서 그 문제들을 최근에 올라온 순으로 출력해서 계속 풀고, 풀이 강의도 들었습니다. 또한 단어장을 만들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part7은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재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전에 풀다가 만 문제집이 있어서 시간을 정해서 그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했습니다.

Ⅳ.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과정

저는 LEET시험이 끝나고 인터넷을 통해 면접스터디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EET시험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는 스터디를 구하거나 학원에 등록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

드시 면접 준비는 혼자서 아닌, 학원에 등록하거나 스터디를 구해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를 구하기 위해 전에 가입했던 카페를 둘러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구성의 스터디 그룹이 잘 없어서 결국에는 제가 글을 올려서 모집했습니다. 다행히 글을 올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저는 그 중 연령도 다양하고, 전공도 다양한 분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스터디 모집을 한 사람으로서 스터디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었는데, 스터디원들 중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고,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어서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처음에는 주 3회 모이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면접이 다가올 쯤에는 주 4회로 횟수를 늘려서 진행했고, 회당 3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면접용으로 나온 교재를 다 같이 구매하여 주 2회 정도는 주교재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시사 이슈를 다뤘습니다.

주교재 내용을 다루는 날에는, 그 날 진도를 나가기로 한 부분을 펴고 주로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 존폐가 주제였다면, 돌아가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맹점이 있거나 반박할 견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주교재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교재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무슨 의견이든 서로 교환을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모였을 때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해 종이에 정리를 해놓고, 매주 1인당 한 주제씩 할당하여 그 내용을 조사해오도록 했습니다. 주제를 할당받은 스터디원은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스터디원 수만큼 문서를 출력해왔고, 스터디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자신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터디원이 6명이어서 주 1회 시사 이슈를 다룬다고 해도, 주당 6개의 주제는 다루는 것이 되어 많은 시사 이슈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나중에 실제 면접을 볼 때 상당부분이 면접스터디에서 다루었던 부분에서 나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다가올 쯤에는 모의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의자와 테이블을 셋팅해놓고, 면접자를 의자에 앉힌 뒤, 면접자 역할이 아닌 스터디원들은 면접관이 되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어렵고 난처한 질문도 해가면서 최대한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스터디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첨삭도 함께 했습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스터디원들끼리 자기소개서를 돌려보면서 총 6번의 첨삭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적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초안 작성 때에는 쓰고 싶은 대로 편하게 써봤습니다. 그리고나서 스터디원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적해주고, 제 자기소개서도 첨삭을 받고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V. 글을 마치며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읽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난잡한 글이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합격 전략을 세우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 기관으로 실습을 나가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는데, 실습을 나가면서 졸업 후 저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제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설레기까지 합니다.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성경구절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곧 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이 되며, 인격은 곧 인생이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 입시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